

면담기반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 기관평가척도(CAPP - IRS) 도구 타당화 연구*

서 종 한[†]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CAPP-IRS)를 국내에 타당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CAPP-IRS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중인 재소자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이 동시에 이뤄졌다. 그 결과 양호한 수준의 CAPP-IRS 평가자간 신뢰도(ICC)를 보였으며 검사-재검사(test-retest) 수준도 두 시도 간 높은 관련성을 보여 신뢰성이 양호했다. 준거 척도의 수렴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면담 기반의 한국판 PCL-R과 자기보고식 한국판 PPI-R간 상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두 준거 척도 간 수용할 만한 연관성을 보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도구를 활용하여 치료 효과성, 일반인, 여성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상장면에서 치료자가 사이코패시의 변화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코패시의 평가, 진단, 치료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CAPP-IRS, 사이코패시 성격, 신뢰도, 타당도, 면담 기반, 범죄자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교정본부 산하 심리치료과 선생님들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원저자인 Stephen D. Hart, David Cooke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 교신저자: 서종한,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경산시 대학로 280 종합강의동 311호
Tel: 053-820-2238, E-mail: jonghansea@yu.ac.kr

사이코패시 성격(psychopathic personality)은 1800년대 프랑스 출신의 정신병리학자 필리페 피넬(Philippe Pinel, 1745-1826)로부터 본격적으로 사이코패시 성격에 따른 개별 개념이 다뤄졌고,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실증적 연구와 함께 임상 장면에서 임상적 수준에서의 개념 정의가 탐색적으로 시도되었다(Maughls, 1941). 1900년대에는 그 개념적 수준에서 각계 학술 연구자마다 조작적 정의를 역사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특히 Rush, Patridge, McMcord, Cleckley, Hare, Lilienfeld 등이 학술적 연구를 진행했고, 질적 연구 수준의 사례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 혹은 진단 도구 개발이 시작되었다.

국내외에서 그간의 다양한 연구로 밝혀진 사이코패시 증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Cleckley, 1988; Hare, 1991; Skeem Polaschek, Patrick, & Lilienfeld, 2011; 김나애, 이수정, 서종한, 2019; 서종한, 이수정, Cooke, 2018; 서종한, 김경일, 2019). 사이코패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입심이 좋고 피상적인 매력에 있는 듯 비취지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기만적이고 특히 불안감이 현저히 부족하다. 반사회적 측면에서 충동적이며 이에 대한 양심이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질을 기반으로 사이코패시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는 Hare, Cox, Hart 등이 개발한 PCL 시리즈, PCL-R(Hare, 1991), PCL:SV(Hart, Cox, & Hare, 1995), PCL:YV(Forth, Kosson, & Hare, 2003) 정도이다. 이들 모두 남성 청소년 혹은 성인 사이코패시 성격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Golden Standard'로 받아들여지며 초기 버전인 PCL(Hare, 1980)을 기반으로 한 수정판이 1991년에 출간되며 30년간 형사사법, 범심리학회, 교정임상장면에서 진단도구로 폭넓게 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은경과 이수정(2008)이 탐색적 수준에서 한국판으로 PCL-R을 타당화하여 보호관찰, 교정, 치료감호, 형사사법, 감정기관에서 범죄자의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

psychopathy personality disorder)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Skeem, Cooke(2010a, b)은 기존 2모델을 발전시켜 만든 Hare의 4모델기반 PCL-R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4번째 단면으로 제시되는 반사회적 행동과 일탈적 행위(충동성과 범죄적 행동 관련 외현적 특질)가 전체적으로 요인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핵심 기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소위 순환론적 오류(tautological error; Skeem, & Cooke, 2010b)를 지적하며 대인관계, 정서성에 의해 나타나는 외현적 문제일 뿐이지 사이코패스가 갖는 고유한 정보(information)를 진단과 치료에 유의미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확인적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3모델의 적합성이 전체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Cooke, Michie, Hart, & Clark, 2004; 서종한, 김은하, 김경일, 2019), 특히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 Cooke & Michie, 1997; Cooke, Michie, Hart, & Hare, 1999)으로 보았을 때, 4단면(반사회적 일탈성)의 정보지수(information curve)가 다른 요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문화 간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차별기능문항(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PCL-R을 제외하고 사이코패시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면담 기반의 진단/평가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PCL-R과 같이 오래전 개발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간 진화하거나 추가로 밝혀지는 사이코패시 기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으며 특정 진단 도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자칫 다양한 오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DeMatteo, Hart, et al., 2020). 자기보고식 평가도구의 가능성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고, 일부 잘 타당화된 평가도구들인 TriPM, Levenson의 SRP, LSRP 확장판인 E-LSRP, ICU, Hare의 SRP 등이 존재하지만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에 비해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보완적 도구로 사용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Sellbom Lilienfeld, Fowler, & McCrary, 2018).

그러나 기존의 면담 기반의 진단도구는 문항이 주로 정적 요인(과거에 어떤 문제행동을 보였는지, 그러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사이코패시 수준 변화를 추적 평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과거에 보인 반사회적 행동 초점을 두기에 치료 혹은 개입의 효과성 평가를 현저히 어렵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사이코패시 특질의 변화 수준을 민감하게 잡아내지 못하게 된다. 과거 사이코패시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치료/개입이 사이코패시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시각에서 지금은 다양한 실증 혹은 사례연구에서 사이코패시가 진단, 개입, 사후 사례관리 수준 등에 따라 일정 범위를 두고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olaschek & Skeem, 2018). 이 때문에 연구자와 임상가는 그 변화의 흐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최근 어떤 증세가 구체적으로 증감되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평가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Cooke & Logan, 2018).

또한 기존의 면담 기반의 평가 도구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권고하는 기질 극한성(trait-extremity)과 기능적 손상(functional deficit) 간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ICD-11, 2021, 최신버전). WHO에서는 개입의 수준과 방법에 따라 치료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개입방법이 기질인지 아니면 기능적 손상인지에 따라 사이코패시 증상 구별이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예컨대 사이코패시 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법인지행동치료(forensic-cognitive behavioral therapy; Galietta, 2018)와 크로마이즈(Chromis Programme; Tew & Atkinson, 2013)는 다분히도 사고와 인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체계로 보며 보다 특질[기질]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Olver와 Wong(2013) 등이 개발하여 사이코패시 치료에 적용하는 폭력 행동 감소프로그

램(Violence Reduction Programme; Wong & Gordon, 2013)은 기능적 손상, 예컨대 적대적, 공격적, 방해하는 행동의 감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진단 혹은 평가도구는 이 둘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을 지어주어야 하며 각 치료프로그램의 초점에 따라 치료 방법에 따른 변화의 정도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는 모두가 중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대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위 범죄적 사이코패스(criminal psychopathy) 집단을 위주로 평가도구가 적용되었지만 최근의 연구(Babiak, Neumann, & Hare, 2010; Boddy, 2011)에서 비범죄적 사이코패스, 기업형 사이코패스, 혹은 성공적 사이코패스 등이 일상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이 미치는 해악적 영향은 법의 경계선에서 막대한 피해, 특히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종한, 신강현, 김경일, 2018).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이코패스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호환적 면담 기반의 평가 도구 개발 필요성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더불어 현재까지 제작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가 지극히 남성(범죄자) 중심의 사이코패시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면에서 실제 여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활용되었고 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이 연구자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Kreis & Cooke, 2012; Kreis, Cooke, Michie, Hoff & Logan, 2012). 문헌에 따르면 남성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여성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질은 불안정한 자기개념, 수다스런, 의심하는, 가식적인, 감정 안정성이 결핍된 등(서종한 등, 2018; Kreis et al., 2012)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평가도구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처럼 현 시대 맞는 면담 기반의 평가도구 개발이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앞서 제기된 다

양한 평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ooke, Hart, Logan과 Michie(2004)는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모델(CAPP model)을 포괄적 수준에서 제시했다. CAPP 모델은 각 국(유럽, 아시아, 북미 등)의 사이코패시 관련 내용전문가의 면담과 포괄적 문헌검토 과정을 거쳐 과대표현 수준에서 사이코패시 증상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 기관평가용(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e Rating Scale; 이하 'CAPP-IRS')을 탐색적 수준에서 만들어 현재 북미와 북유럽 등을 중심으로 교도소에서 활용하고 있다.

CAPP-IRS는 7점 척도로 전 생애 혹은 특정 기간(예, 6개월, 12개월, 3년 등)의 사이코패시 증상 변화를 탐지해낼 수 있으며, 성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증상을 특질과 기능손상으로 구분하여 치료와 개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PP-IRS는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포괄적 수준에서 사이코패시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33개의 항목, 6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져 있다. 6개 하위 영역은 애착, 행동, 인지, 지배성, 정서성, 자기 등이다. 현재까지 실증연구에서 이뤄진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기관평가용)와 관련된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은 주목할 만한데, 부분적으로 유럽과 북미 일부 국가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연구에서 강제치료감호소 범법환자, 캐나다에서 교정시설 중범죄자, 영국에서 중범죄자수용시설범죄자, 노르웨이 교도소 성인 남성 범죄자, 미국 교정시설 범죄자, 뉴질랜드 일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대단위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Cooke, Hart, Logan, & Michie, 2012; Dawson, McCuish, Hart, & Corrado, 2012; De Page, Merceneir, & Titeca, 2018; Kreis & Cooke, 2011; McCormick, Corrado, Hart, & Cohen, 2008; Pedersen, Kunz, Rasmussen, & Elsass, 2010; Sandvik et al., 2012). 이들 연구에서 CAPP-IRS 평가자간 신뢰도(ICC) 수준은 Landis, Koch(1977)의 등급 기준으로 볼 때 총점과 하위 6개 영역 수준에서는

중음에서 월등함($ICC_1 > .80$)으로 나타났고 개별 33개 증상 수준은 보통에서 월등함($ICC_1 > .50$)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 대표적으로 Hare의 PCL 시리즈 PCL-R, PCL:SV, PCL:YV 등 간 수렴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총점과 하위 영역 간에 유의미한 상관($r > .50$)을 보였다(De Page et al., 2018; Pedersen et al., 2010) 또한 예측타당도 수준에서는 폭력과 비폭력 범죄 재범위험성 측면에서 CAPP-IRS 전체점수는 PCL:SV 점수와 동등한 수준에서 예측타당도를 보였고(Pedersen et al., 2010). 최근 De Page 등(2018)의 연구에서는 CAPP-IRS가 임상적 기능과 관련된 증상을 예측하는 데 훌륭한 도구인 반면 PCL-R의 경우 전 생애를 기반으로 향후 재범 위험성 예측타당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PP-IRS 국내 타당화를 목적으로 크게 3가지 연구가 이뤄졌다. 첫째 CAPP-IRS 6개 하위영역과 33개 개별 증상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를 1) 개별 채점자 점수 간 (ICC_1)과 2) 평가자 평균 간(ICC_2)에서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검사-재검사(test-retest) 신뢰도 확인을 위해 동일한 평가자가 한 달 이후 재평가하여 그 일치성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신뢰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시 성격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준거척도 한국판 PCL-R, 한국판 PPI-R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주로 북미와 유럽을 위주로 타당화가 이뤄졌지만 앞서 제시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탐색적 가설을 포괄적 수준에서 설정해 볼 수 있다. CAPP-IRS는 면담기반의 PCL-R과 보통수준에서 좋은 수준 사이에서 상관관계($r > .50$)를 보일 것이다. 특히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CAPP-IRS는 PCL-R의 대인관계(1단면)와 정서성(2단면) 혹은 요인1(1단면+2단면) 간에 높은 관계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CAPP-IRS는 자기 보고 기반의 PPI-R 간에도 보통 수준 정도의 상관을 보일 것이다. 평가자 간의 신뢰도에서 보

통 이상의 신뢰도($ICC \geq .40$)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일치성($r > .70$)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참가대상자

참가자는 모두 법무부 교정청 각 교도소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 전국 6개의 교정기관 수용 중인 재소자 남성 88명과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최종적으로 모집하였다. 참가자 전체 나이 범위는 21에서 69세까지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40.06세($SD=12.61$)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본 범죄를 살펴보면 살인 15명(16.8%), 성폭력 30명(33.7%), 폭력(이로 인한 상해) 23명(25.8%), 강도 7명(7.8%), 절도 5명(5.6%), 방화 3명(3.3%), 사기 5명(5.6%), 향정신성 약물관련 위반 1명(1.1%) 등이었다. 전체 참가자 과거 기소 횟수는 평균 8.69회(표준편차=8.70), 이로 인한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평균 5.93년이며, 수용 기간 중 징벌 등을 받은 비율은 4.12%였다. 시설 내 징벌·징계 사유는 수용 기간 중 교도관 및 수형자 협박, 상해, 지시 사항 불이행, 자해 등이었다. 최종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22.4%, 초졸에서 중졸 이하가 14.6%, 중졸에서 고졸 이하 35.9%, 고졸에서 대졸 이하 26.9%였다. 과거 결혼이력의 경우 미혼 56.1%, 사실혼 등을 포함하여 기혼 26.9%, 이혼 12.7%, 사별 3% 순이었다. 최종적으로 재소자 8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5명은 면담 직전, 3명은 면담 중, 3명은 면담 직후였다.

진행절차

원저자간 본 도구 번역 절차

본 연구 책임자가 CAPP-IRS 증상 평가지, 매뉴얼, 면담질문지 3종의 원본을 원저자로부터

얻어 전체 과정에서 번역을 진행했다. CAPP-IRS 하위 영역과 세부 증상에 대해서는 원저자인 David Cooke(베르겐대학교 심리학과), Stephen D. Hart(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심리학과)와 접촉하여 세부적으로 각 증상, 증상별 형용사 기술어, 요인에 대한 정의와 구성 개념, 기술, 지표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후 연구 책임자가 번역 초안을 작성하여 두 명의 통역 전문가에게 역-번역(back-translation)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두 명의 원저자의 검토를 받고 재차 수정 이후 별도의 번역 전문가에게 역-번역을 다시 진행하여 이에 대해 원저자와 의견 받았다. 이런 과정이 4차례 진행(1차례 rotation procedure: 번역-역번역-피드백-수정보완)되었고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번역본에 대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여 최종 한국판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본 도구에 대한 평가자 교육

연구 책임자가 CAPP-IRS 원저자(David Cooke, Stephen D. Hart)를 두 차례 국내 초빙하여 평가자에게 32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평가자는 모두 교정본부 산하 각 교정청에서 근무 중으로 재소자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가들이었다. 1차 교육(3박 4일)은 이론과 평가지 작성, 사례 슈퍼비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2차 교육(3박 4일)은 보수교육으로 CAPP-IRS 평가지, 채점 매뉴얼과 관련된 절차, 평가 방식을 검토한 후 주로 사례 검토와 이에 대한 슈퍼바이저 피드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후 본 연구 책임자가 참여 평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2건의 사례 감독을 추가로 실시했다.

참가대상자 모집의 경우, 교정본부 간 상호업무체결(MOU) 이후 각 교정청 산하 심리치료과의 업무협조를 얻어 본 연구에 대해 재소자에게 홍보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한해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재차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평가실시

평가를 위한 면담이 이뤄지기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면담 전, 중, 후라도 연구 참여 포기, 철회 혹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모든 평가자는 교정청 이하 교도소 심리치료과에서 제공하는 분류 심사표, 동정사항, 수사 및 범죄경력, 판결문, 시설 내 징벌내용, 기타 인성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면담에 참여하였다.

본 평가를 위해 3명의 평가자가 면담을 동시에 참여하여 실시했으며 이 중 한 명의 평가자가 주도적으로 CAPP-IRS 면담을 이끌었다. 다른 한 명의 평가자는 CAPP-IRS 면담이 끝난 후 PCL-R 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CAPP-IRS 면담에 사용한 질문은 Cooke 등(2014; 최신버전)이 제작한 CAPP-IRS 인터뷰 질문지(73페이지 정도 한글판)를 활용하였다. 이 CAPP-IRS 면담 질문지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해당 증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기 특별한의식(자기영역-3번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은 “여기서 얻고 싶은 것인 무엇인가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혹은 상담치료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등이며 참가자의 반응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하거나 다양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던져볼 수 있다.

면담 종결 후 참여자는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평가도구인 한국판 PPI-R을 30~40여 분간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3~5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참여자의 피로도와 희망 의사에 따라 15분간 두, 세 차례정도의 휴식을 가졌다. 면담이 끝난 이후 곧 바로 평가자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여 완료했다.

이후 검사-재검사를 위해 1차 평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1차 면담 시 획득한 정보와 참고자료(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기반으로 동일한 평가자가 재평가하였다. 이후 모든 평가 면담 과정이 끝난 이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에게 평가 면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교정청 심리치료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12개월 걸쳐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본 검사, CAPP-IRS

한국판 CAPP-IRS(Cooke et al., 2004, 2012)는 크게 6개 하위영역(애착, 행동, 인지, 지배성, 정서성, 자기)과 전체 33개의 증상, 각 증상은 다시 3개의 기술 형용사로 구성되어 총 99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애착 영역은 관계에서의 헌신, 신뢰, 유대감을 행동 영역은 적대성, 공격성, 인지 영역은 계획성과 집중력 등을, 지배성 영역은 관계에서 지배성, 조종, 거짓말 등을, 정서성 영역은 공감력, 죄책감 등을, 마지막으로 자기 영역은 중심성, 특별한의식, 특권의식 등을 다룬다. CAPP-IRS 33개 각 증상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2=약간 아니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이며 평가는 크게 기능적 손상(dysfunction deficit)과 특질 극한성(trait extremity) 수준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7점 Likert 척도(0=전혀 아니다, 1=다소 그렇다, 2=약간 그렇다, 3=보통 그렇다, 4=어느 정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33개 증상 수준을 최종적으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92이다.

한국판 PCL-R

PCL-R(Hare, 1991; 조은경, 이수정, 2008)은 크게 2가지 요인(대인관계/정서성, 사회적 일탈성),

4가지 단면(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20문항(참고문항 2문항)으로 3점 Likert 척도(0=없음, 1=부분적, 2=있음; 점수 범위 0~40) 기반으로 각 문항을 평가한다. 한국판 PCL-R은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만 하며 전 생애(lifetime)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기준점(cur-off score)은 국내에서는 24점, 유럽(영국 기준) 26점, 북미(캐나다, 미국)에서는 30점이다. 면담 기반의 평가로 다양한 정보와 사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 α 는 .776이다

한국판 PPI-R

PPI-R(Lilienfeld, Scott, Michelle, Widows, & Staff, 2005; 이수정, 박혜영, 2008)은 전체 15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이코패시 성격의 다양한 단면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졌다. 본 도구는 일반인과 범죄자 집단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성별 또한 제약을 받지 않아 학계와 실무에서 폭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다르다, 1=대체로 다르다, 2=대체로 맞다, 3=맞다)로 자기보고식 평가이며 전체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총 8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권모술수적 이기주의는 자기애적, 무례한 태도를, 반항적 비협조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분별력부족을, 비난의 외재화는 타인 비난과 타인 실수로 여기는 경향성을, 무책임한 비계획성은 행동 전 계획에 무관심을, 사회적 영향력은 타인을 조종하는 설득 능력을, 대담성은 위험행동 추구, 두려움/불안감 결핍을, 스트레스 면역은 불안유발 사건에 대한 반응의 부재를, 마지막으로 냉담함은 무정하고 무감각하여 죄책감 결핍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모술수적 이기주의(20문항), 반항적인 비협조(16문항), 비난의 외재화(15문항), 무책임한 비계획성(19문항), 사회적 영향력(18문항), 대담성(14문항), 스트레스 면역(13문항), 냉담함(16문항) 등이다. PPI-R

은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자기중심적 충동성(권모술수적 이기주의+반항적인 협조+비난의 외재화+무책임한 비계획성), 대담성의 우세(사회적 영향력+대담성+스트레스 면역), 냉담함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 α 는 .759이다.

분석방법

평가자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본 연구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해 단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 Koo & Li, 2016, p. 202) 특히 이차원 혼합 방식(mixed, two-way; raters random, measure fixed; 실험 대상은 무작위 추출, 평가자는 고정상태) 모델3을 선택했으며 평가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합치도(absolute agreement method)를 적용하였다(Shrout & Fleiss, 1979). 총 89 사례에 대한 CAPP-IRS 개별 33개 증상, 6개 하위요인, 전체점수 간에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크게 개별 평가자 간 매칭 이후의 평균 신뢰도(ICC_{3,1})와 일군의 평가자 간 평균 비교를 통한 신뢰도(ICC_{3,3})를 살펴보았다. 통상 ICC의 기준은 Fleiss(1981)에 따라 아주 좋음($\geq .75$), 좋음($\geq .60$), 보통($\geq .40$), 낮음($\leq .39$)이다. Landis와 Koch(1977)에 따르면 거의 완벽함($\geq .81$), 높음($\geq .61$), 보통($\geq .41$), 낮음($\geq .21$), 아주 낮음($\leq .20$)으로 평가된다.

한 달을 주기로 이뤄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두 시행에 대한 일치도(ICC)도 함께 분석하였다. 통상 상관계수가 .70~.80 이상인 경우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Keszei, Novak, & Streiner, 2010).

수렴타당도

CAPP-IRS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면담 기반(interview-based)의 한국판 PCL-R 4개 단면, 2개 하위요인, 전체점수 간 피어슨 상관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자기보고 기반

(self-reporting) 한국판 PPI-R의 요인인 권모술수적 이기주의, 반항적인 비협조, 비난의 외재화, 무책임한 비계획성, 사회적 영향력, 대담성, 스트레스 면역, 냉담함, 전체 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다. 상관 기준의 경우 통상 .35이하인 경우 약한 상관, .36~.37은 중간중도 상관, .68 이상인 경우 강한 상관으로 보고한다(Taylor, 1990).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였다.

결 과

표 1은 CAPP-IRS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CAPP-IRS 6개 하위 영역 모두 .65이상의 내적일관성을 보고(범위: .664~.822)하고 있으며 인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규분포(normality)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애착은 0~24점 분포를 보이며 평균 10.47, 표준편차 5.58이었다. 행동은 0~36점 분포를 보이며 평균 14.58, 표준편차 7.84이었다. 인지는 0~30점 분포 범위, 평균 13.62, 표준편차 6.88이었다. 지배성은 3~30점 범위, 평균 12.35, 표준편차 6.81이었다. 정서성은 3~30점 분포, 평균 12.96, 표준편차 6.35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영역은 5~42점 분포, 평균 14.90, 표준편차 7.96이었다.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5~198점의 점수

표 1. CAPP-IRS 하위 6개 영역에 대한 기술통계

영역(점수범위)	<i>Chronbach's a</i>	<i>Shapiro-Wilk</i>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애착(0-24)	.767	.966*	0	24	10.47	5.58
행동(0-42)	.684	.973*	0	36	14.58	7.84
인지(0-30)	.822	.966	0	30	13.62	6.88
지배성(0-42)	.689	.983*	3	30	12.35	6.81
정서성(0-30)	.802	.985*	3	30	12.96	6.35
자기(0-42)	.664	.972*	5	42	14.90	7.96
전체(0-210)	.892	.983*	5	198	78.88	34.13

주. * indicates significant normality ($p > .05$).

표 2. CAPP-IRS 하위 6개 영역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애착	-						
2. 행동	.60**	-					
3. 인지	.81**	.72**	-				
4. 지배성	.41**	.51**	.50**	-			
5. 정서성	.82**	.63**	.75**	.44**	-		
6. 자기	.54**	.44**	.56**	.71**	.61**	-	
7. 전체	.83**	.80**	.87**	.73**	.87**	.80**	-

주. * $p < .05$, ** $p < .01$

분포를 보이며 평균 78.88, 표준편차 34.13이었다. 표 2는 CAPP-IRS 전체 점수,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점수와 하위 영역 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범위: .73~.87) 특히 인지와 정서성 영역과 가장 높은 상관(.87)을 보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표 3은 CAPP-IRS 6개 하위 영역 평가자 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ICC(2,1)의 범위는 .91~.93 수준으로 모두 양호한(excellent) 수준을 보이고 있다. ICC(2,4)는 .96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excellent)’ 수준의 일치도이다 (Fleiss, 1981; Landis & Koch, 1977).

표 4는 CAPP-IRS 33개 증상별 평가자 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ICC(3,1) 범위를 살펴보면 .72~.93 수준으로 모두 양호한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행동 영역의 산만한(.72) 증상을 제외한 모두에서 높음 수준($\geq .75$)의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다(Fleiss, 1981). ICC(3,3)의 경우 33개 증상 모두 .88 이상의 ICC를 보고하고 있으며 Fleiss(1981)과 Landis와 Koch(1977) 기준에서 공통

표 3. CAPP-IRS 전체점수, 하위 6개 영역별 평가자 간 신뢰도

CAPP-IRS 하위 영역	평가자 간	
	개별 점수 간 ICC(3,1) (95% CI)	평균 점수 간 ICC(3,3) (95% CI)
애착	.91 (.88, .94)	.97 (.95, .98)
행동	.92 (.89, .94)	.97 (.96, .98)
인지	.93 (.90, .95)	.97 (.96, .98)
지배성	.93 (.90, .95)	.97 (.96, .98)
정서성	.92 (.89, .95)	.97 (.96, .98)
자기	.92 (.89, .94)	.97 (.96, .98)
전체	.91 (.87, .94)	.96 (.95, .98)

주. ICC: 급내상관, 괄호: 95% 신뢰구간

되게 ‘높음 / 거의 완벽한’ 수준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표 5는 CAPP-IRS 하위 6개 영역과 33개 증상에 대한 한 달 주기로 평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CAPP-IRS 6개 영역 ICC(3,1) 모두 최소 .880 이상의 상관(범위: .884~.959)을 보여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CAPP-IRS 33개 증상 ICC(3,1) 들도 .754~.944 상관범위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다만 행동 영역의 산만한(.754)과 자기 영역의 자기-불사신의식(.769) 증상이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았다. 또한 ICC에서도 모두 .750이상의 수치를 보여 Fleiss(1981)와 Landis와 Koch(1977) 기준 모두 ‘높음’ 수준의 일치성을 보였다.

수렴 타당도

표 6은 CAPP-IRS 6개 하위영역, 총점과 PCL-R 총점, 요인, 각 단면별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총점을 기준으로 .392~.647 상관 범위를 보이며 대체로 중간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행동과 인지 두 영역이 PCL-R 총점과 높은 상관(행동, $r=.685$; 인지, $r=.610$)을 보였다. 적대성, 공격성과 범죄성을 나타내는 행동 영역과 충동성/비계획성을 의미하는 인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은 PCL-R 이 충동성과 생활양식, 반사회성 관련된 문항이 많으며 이에 초점을 둔 평가체계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CAPP-IRS 지배성, 자기 영역은 PCL-R 요인1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지배성, $r=.514$; 자기, $r=.417$)을 보였고 애착, 인지, 정서성 영역은 PCL-R 요인 1과 2 모두 비슷한 상관을 보였다(범위: .331~.454). 자기 영역은 PCL-R의 대인관계 중 입심중요, 피상적 매력, 과도한 자존감 간에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높은 관련

표 4. CAPP-IRS 영역별 33개 증상별 평가자 간 신뢰도

영역	개별증상	단일 점수 간	평균 점수 간
		ICC _(3,1) (95% CI)	ICC _(3,3) (95% CI)
애착	무심한	.82 (.75-.88)	.93 (.90-.95)
	신뢰관계가 없는	.90 (.86-.93)	.96 (.95-.97)
	공감하지 못하는	.85 (.79-.89)	.94 (.91-.96)
행동	무정한	.82 (.76-.88)	.93 (.90-.95)
	근기가 부족한	.89 (.84-.92)	.96 (.94-.97)
	믿을 수 없는	.91 (.87-.94)	.96 (.95-.98)
	무모한	.83 (.77-.88)	.93 (.91-.96)
	산만한	.72 (.62-.80)	.88 (.83-.92)
	방해하는	.86 (.80-.90)	.95 (.92-.96)
인지	공격적인	.93 (.91-.95)	.97 (.96-.98)
	의심하는	.85 (.80-.90)	.94 (.92-.96)
	집중력이 부족한	.85 (.79-.90)	.94 (.92-.96)
	편협한	.90 (.85-.93)	.96 (.94-.97)
	융통성이 없는	.87 (.81-.91)	.95 (.93-.96)
지배성	계획성이 없는	.90 (.86-.93)	.96 (.95-.97)
	적대적인	.88 (.83-.92)	.95 (.93-.97)
	지배하려 드는	.87 (.82-.91)	.95 (.93-.97)
	기만적인	.88 (.83-.92)	.95 (.93-.97)
	조종하는	.90 (.86-.93)	.96 (.95-.97)
	가식적인	.86 (.81-.91)	.95 (.93-.96)
정서성	수다스런	.91 (.87-.94)	.96 (.95-.98)
	불안감이 부족한	.84 (.78-.89)	.94 (.91-.96)
	즐거움이 부족한	.91 (.88-.94)	.97 (.95-.98)
	감정 깊이가 부족한	.88 (.83-.92)	.95 (.93-.97)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84 (.78-.89)	.94 (.91-.96)
자기	죄책감이 부족한	.88 (.83-.92)	.95 (.94-.97)
	자기 중심적인	.90 (.87-.93)	.96 (.95-.97)
	자기 과시적인	.87 (.82-.91)	.95 (.93-.97)
	자기 특별의식	.87 (.81-.91)	.95 (.93-.96)
	자기 특권의식	.82 (.75-.87)	.93 (.90-.95)
	자기 불사신의식	.86 (.81-.91)	.95 (.93-.96)
	자기 정당화하는	.88 (.83-.92)	.95 (.93-.97)
	불안정한 자기개념	.88 (.83-.92)	.95 (.93-.97)

주. ICC: 급내상관, 괄호: 95% 신뢰구간

표 5. CAPP-IRS 6개 하위 영역, 33개 증상별 검사-재검사 신뢰도

영역	개별증상	베이스라인 M(SD)	재검사 M(SD)	r	ICC(95%)
애착(4)		10.83(6.52)	10.95(5.48)	.933***	.927(.889-.953)***
	무심한	2.75(1.90)	2.76(1.61)	.891***	.878(.817-.920)***
	신뢰관계가 없는	2.62(1.84)	2.79(1.64)	.915***	.910(.864-.941)***
	공감하지 못하는	2.92(1.81)	2.90(1.54)	.895***	.886(.828-.925)***
	무정한	2.51(1.72)	2.49(1.55)	.895***	.890(.835-.928)***
행동		14.77(7.72)	14.86(7.03)	.944***	.938(.905-.960)***
	끈기가 부족한	1.92(1.75)	2.17(1.51)	.870***	.860(.790-.908)***
	믿을 수 없는	2.95(1.78)	3.04(1.55)	.909***	.900(.849-.934)***
	무모한	3.44(1.91)	3.49(1.63)	.880***	.867(.800-.912)***
	산만함	1.33(1.54)	1.43(1.43)	.754**	.750(.637-.832)***
	방해하는	2.34(1.98)	2.24(1.84)	.907***	.905(.856-.938)***
	공격적인	2.76(1.93)	2.46(1.76)	.944***	.940(.908-.961)***
		13.78(6.94)	13.86(6.27)	.959***	.955(.931-.971)***
인지	의심하는	3.04(1.73)	3.22(1.57)	.832***	.826(.742-.884)***
	집중력이 부족한	1.86(1.74)	2.02(1.61)	.892***	.890(.835-.928)***
	편협한	2.62(1.90)	2.54(1.65)	.914***	.905(.856-.938)***
	융통성이 없는	3.05(1.81)	2.90(1.52)	.916***	.906(.858-.939)***
	계획성이 없는	3.19(2.02)	3.17(1.70)	.908***	.893(.838-.930)***
지배성		12.68(6.83)	12.37(6.22)	.943***	.940(.908-.961)***
	적대적인	2.16(1.81)	2.09(1.67)	.934***	.931(.895-.955)***
	지배하려 드는	2.06(1.73)	2.02(1.54)	.861***	.856(.785-.905)***
	기만적인	2.24(1.60)	2.11(1.45)	.901***	.895(.842-.931)***
	조종하는	1.80(1.53)	1.82(1.60)	.886***	.886(.828-.925)***
	가식적인	2.43(1.62)	2.46(1.40)	.861***	.852(.779-.902)***
	수다스런	1.95(1.82)	1.83(1.69)	.867***	.866(.799-.912)***
정서성		13.15(6.38)	13.34(4.4)	.921***	.910(.864-.941)***
	불안감이 부족한	1.85(1.76)	1.89(1.43)	.826***	.812(.722-.875)***
	즐거움이 부족한	2.49(2.05)	2.51(1.81)	.879***	.871(.806-.915)***
	감정 깊이가 부족한	2.51(1.73)	2.69(1.53)	.849***	.844(.767-.897)***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2.77(1.81)	2.82(1.78)	.891***	.891(.835-.928)***
	죄책감이 부족한	3.51(1.90)	3.45(1.54)	.885***	.865(.797-.911)***
자기		15.29(8.10)	14.51(6.82)	.884***	.874(.810-.917)***
	자기 중심적인	3.13(1.81)	3.04(1.50)	.850***	.835(.754-.890)***
	자기 과시적인	1.82(1.73)	1.67(1.45)	.879***	.874(.811-.917)***
	자기 특별의식	1.68(1.51)	1.48(1.29)	.823***	.815(.727-.877)***
	자기 특권의식	1.65(1.52)	1.56(1.41)	.858***	.857(.786-.906)***
	자기 몰사인의식	1.32(1.55)	1.07(1.21)	.769**	.755(.644-.835)***
	자기 정당화하는	3.23(1.85)	3.29(1.55)	.881***	.867(.801-.913)***
	불안정한 자기개념	2.43(1.91)	2.49(1.71)	.877***	.869(.803-.914)***

주. *** : p < .000, ICC : 급내상관, 괄호 : 95% 신뢰구간

표 6. CAPP-IRS 6개 영역과 PCL-R 간 상관관계

PCL-R	Chronbach's	CAPP-IRS 하위영역						
	a	애착	행동	인지	지배성	정서성	자기	총점
단면1 ^a	.565	.187	.069	.085	.469**	.065	.387**	.263**
단면2 ^b	.792	.575**	.492**	.573**	.337**	.543**	.383**	.597**
단면3 ^c	.600	.424**	.646**	.490**	.248*	.420**	.225	.498**
단면4 ^d	.662	.279*	.521**	.407*	.199	.242	.092	.354**
요인1	.716	.454**	.325**	.413**	.514**	.336**	.417**	.501**
요인2	.753	.345**	.647**	.416**	.132	.331**	.032	.406**
총점	.776	.550**	.685**	.610**	.438**	.504**	.392*	.647**

주. * p < .05, ** p < .01; a-대인관계(입심종음, 과도한 자존감, 거짓말, 속임 등), b-정서성(죄책감 결여, 얕은 감정, 공감능력 결여, 책임 못 느낌 등), c-생활양식(자극육구, 기생적, 장기목표 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등), d-반사회성(행동통제 부족, 어릴 때 문제행동, 비행, 조건석방 및 유예 취소, 다양한 범죄력 등).

성을 보이며 지배성 또한 대인관계 중 거짓말, 성이 높게 나타났다.
 조중함 등고 비슷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표 7은 CAPP-IRS 6개 하위 영역과 PPI-R 6개

표 7. CAPP-IRS 6개 영역과 PPI-R 하위 척도, 요인 간 상관관계

PPI-R 하위척도와 요인	Chronbach's	CAPP-IRS 하위영역						
	a	애착	행동	인지	지배성	정서성	자기	총점
권모술수적 이기주의 ¹	.898	.261*	.196	.263*	.082	.156	.183	.228*
반항적인 비협조 ²	.722	.399**	.228*	.356**	.154	.245*	.266*	.331**
비난의 외제화 ³	.689	.460**	.341**	.485**	.286*	.426**	.353**	.472**
무책임한 비계획성 ⁴	.721	.222*	.339**	.375**	.042	.297**	.132	.287**
사회적 영향력 ⁵	.858	-.285**	-.192	-.311**	-.017	-.299*	-.018	-.218
대담성 ⁶	.700	-.010	-.022	-.045	-.014	-.002	-.033	.000
스트레스 면역 ⁷	.742	-.168	-.156	-.257*	-.066	-.099	-.049	-.159
냉담함 ⁸	.785	.345**	.262*	.387**	.141	.334**	.274**	.340**
F1 자기중심적 충동성	.712	.487**	.401**	.541**	.207	.412**	.342**	.481**
F2 대담성의 우세	.634	-.198	-.133	-.261*	-.038	-.171	-.007	-.157
F3 냉담함	.771	.287**	.262**	.387**	.141	.334**	.274**	.340**
총점	.759	.311**	.287*	.333**	.167	.284*	.333**	.350**

주. * p < .05, ** p < .01; 1-자기애적, 무례한 태도, 2-사회적규범에 대한 분별력부족, 3-타인 비난과 타인 실수로 여기는 경향, 4-행동 전 계획에 무관심, 5-타인을 조종하는 설득 능력, 6-위험행동 추구, 두려움/불안감 결핍, 7-불안유발 사건에 대한 반응의 부재, 8-무정하고 무감각하여 죄책감 결핍

하위척도와 3개 하위 요인 간 상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총점 수준에서 CAPP-IRS는 PPI-R과 다소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350$). 각 하위 척도 수준에서 CAPP-IRS는 전체적으로 PPI-R 비난의 외재화($r=.472$)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다음으로 냉담함($r=.340$), 반항적인 비협조($r=.331$) 순으로 상관을 보였다(상관범위=.000~.472). 특히 비난의 외재화는 정서성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이코패시 증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의 실수로 여기는 경향성을 말하며 CAPP-IRS이 전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핵심 개념과 유사하여 특히 인지와 정서성 영역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영역별 수준에서 CAPP-IRS는 PPI-R 자기중심적 충동성과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r=.481$)을 보인 반면 대담성의 우세($r=-.157$)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CAPP-IRS의 자기 영역과 높은 개념적 유사성이 있는 PPI-R 자기중심적 충동성 혹은 냉담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소위 사이코패스의 유사적용과 관련성이 있는 대담성의 우세(스트레스 면역을 포함함)는 CAPP-IRS의 핵심적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탐색적 수준에서 면담 기반의 평가 도구에 대한 국내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면담 기반의 평가 도구의 경우 평가자가 처한 환경, 배경 지식과 경험, 평가 시점, 평가자 간 일치성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제기되는 게 일반적이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였다. 특히 면담 기반의 도구의 경우 평가자에 따라 결과 값의 차이가

중요한 단면 중 하나이기에 개별 평가자 간뿐 아니라 집단별 평가자 간 신뢰도 모두 탐색적 수준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본 도구의 평가 결과 값에 대한 일관성에 주요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점에 따른 일관성 수준인 검사-재검사 결과도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보여 신뢰도가 높았다. 특히 수렴타당도의 경우 준거척도인 한국판 PCL-R(면담 기반)과 한국판 PPI-R(자기보고형) 간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간 CAPP-IRS를 다른 다른 일부 탐색적 성격의 실증연구(DePage et al., 2018; Pedersen et al., 2010; Sandvik et al., 2012)와 비슷하게도 6개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 모두 ‘훌륭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 33개 증상 수준은 선행연구 결과보다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부 증상에서는 보통 혹은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2개 증상을 제외한 모든 증상에 ‘좋음’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선행 연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CAPP-IRS 6개 영역 모두 PCL-R보다 나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Florez et al., 2015; Hoff, Rypdal, Mykletun, & Cooke, 2012; Kreis et al., 2012). 즉 평가 전문가들이 각 항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PCL-R 보다 더 나은 내적일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각 영역 간 상관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내외 다양한 사이코패시 원형성 분석 연구(prototypicality analysis; 서종한, 김경일, 2019; 서종한 등, 2018)에서도 행동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타 영역 간 상관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별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평가자간 신뢰도

CAPP-IRS 전체점수, 6개 하위영역과 33개 개별증상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유사 사이코패시 평가척도들 예

컨대 면담 기반의 PCL 시리즈인 PCL-R, PCL:SV, PCL:YV 등이 최근까지 보이는 신뢰도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PCL 시리즈의 평가자 신뢰도는 .74~.98 수준으로 평가자 간 절대적 일치성이 대체로 양호하다(McCormick et al., 2008; Ismail, & Looman, 2018). 비슷한 수준에서 CAPP-IRS도 '좋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평가자 간(rater versus rater) 혹은 평가자 간(raters versus raters)의 평균 점수 비교에서도 수용할 만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전해민과 조은경(2017)이 제기한 쟁점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 통상 PCL-R을 기준으로 전체 오류의 30% 정도 수준에서 평가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Boccaccini, Turner와 Murrie(2008)에 따르면 평가자의 오류가 통제되는 경우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일군의 특정 평가자 집단 이틀면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수준의 보조원을 대상으로 PCL-R의 전문가 지침서와 평가지 채점 전문 교육을 받고 일련의 사례를 바탕으로 슈퍼비전(supervised)을 받은 평가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현재까지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평가자의 특징은 (체계적 훈련/교육 받은) 연구조교이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평가자였고 일련의 잘 짜인 연구세팅에 속해 있었다(Olver & Wong, 2013). 따라서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신뢰도를 보고한 바는 제한적이거나 극히 일부 연구에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eMatteo et al., 2014).

본 연구의 의의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대학원생이 아닌 장면에서 사이코패시 성격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교정 심리치료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연구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평가자 모두 3년 이상 교정에서 근무하며 심리치료자들로서 다소 다른 임상경험과 훈련배경과 자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CAPP-IRS의 원저자 두 명이 직접 2차례의 교육과 사례실습 등이 이뤄졌고 모

든 케이스에 대해 실제 대면 면담과정과 기록자료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소위 복미에서 이뤄지는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엄격하게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양호한 신뢰도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해민, 조은경(2017)과 Blais, Forth와 Hare(2017)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장 임상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경험 있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슈퍼비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Blais 등, 2017).

남성범죄자 집단 평가용 PCL-R과 CAPP-IRS

CAPP-IRS와 면담 기반의 PCL-R 간 상관수준은 전체적으로 다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정도이거나 다소 높았다(De Page et al., 2018; Hansen, Johnsen, Thronton, Waage, & Thayer, 2007; Pedersen et al., 2010; Sandvik et al., 2014; Stoll, Heinzen, Köhler, & Huchzermeier, 2011). 두 평가도구 간 중간 수준 이상의 상관은 결국 PCL-R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코패시 특질과 성격(반사회성과 정서성 등)을 비슷한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andvik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CAPP-IRS는 전반적으로 PCL-R 2단면(정서성) 간 가장 강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외도 PCL-R 2단면(정서성)은 CAPP-IRS 전체 점수, 애착 영역, 정서성 영역과 자기 영역 간에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예측컨대 위에서 열거한 CAPP-IRS 영역들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감 부족, 후회감 결핍, 냉담·무정함, 공감능력 결핍 등의 PCL-R 정서성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일관성 있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요인 관계성 측면에서 De Page 등(2018)과 Stoll 등(201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도 PCL-R 1단면(대인관계와 정서성)과 비교해 볼 때 PCL-R 2요인(반사회성과 충동성)이 다소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원저자의 CAPP 모델

개발 의도에 따라 특정 반사회적 행동보다는 사이코패시 성격과 임상적 기질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는 본 도구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Cooke et al., 2004, 2012). CAPP-IRS 6개 영역과 개별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PCL-R 하위 단면을 보면 가장 높은 상관은 PCL-R 3단면(생활양식/충동성)과 CAPP-IRS 행동 영역이었다. 비슷한 수준에서 PCL-R 2단면(정서성)과 애착, 정서성, 인지 순으로 상관을 보였다. 특이하게도 PCL-R 1단면(대인관계)은 CAPP-IRS 지배성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대인관계에서의 조종, 이중성, 가식성, 속임, 거짓말 등 지배성 증상이 두 척도의 핵심 기질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APP-IRS는 범죄자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 체계로 PCL-R 간의 수렴도 수준을 볼 때 범죄자 집단의 사이코패시 성격을 잘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CL-R의 스크리닝 버전인 PCL:SV 간의 선행 연구가 일부분 존재하는 데 PCL-R 간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PCL:SV(Hart et al., 1995)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 데 이 중 첫 번째 영역(대인관계와 정서성, 6문항) 간의 관련성이 두 번째 영역(반사회적 불안정한 생활양식, 6문항)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Pedersen et al., 2010). De page 등(2018)이 주장하는 바대로 CAPP-IRS는 다양한 임상적 증상(예, 얕은 감정, 냉담성, 무정함 등)등과 관련된 특질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PCL-R은 보다 전생애를 기반으로 향후 재범(향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최적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인 대상 자기보고용 PPI-R과 CAPP-IRS

각 척도의 총점 수준에서 CAPP-IRS는 PPI-R 간 상관수준은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PPI-R 8개척도 중 비난의 외재화와 냉담함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다. 비난의 외재화는 CAPP-IRS 모든 영역과 대체로 상관을 보였으며 애착, 인지, 정서성 영역과 중간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 비슷하게 PPI-R의 냉담함(coldheartedness) 척도는 CAPP-IRS의 애착, 인지, 정서성 영역 간에 일반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CAPP 모델 개발 의도는 단편적으로 들어나는 소위 외현적 일탈성 혹은 범죄적 행동 경향성 보다는 무정서, 냉담성, 무정한 등 기질적 정서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증상들이 원형성 분석(prototypicality analysis; Kreis, Cooke, Michie, Hoff, & Logan, 2012)에서도 일관되게 중요한 사이코패시 특질로 입증되고 있다(Cooke et al., 2004; Kreis et al., 2012). 최근 Jones와 Paulhus(2010)의 자기보고식 평가척도인 사이코패시 척도(SRP-III)와의 관련성에서도 CAPP-IRS는 전체적으로 SRP-III 4가지 하위척도(대인 간 조종, 냉담한 정서, 자기중심적 생활양식, 범죄경향성) 중 냉담한 정서(CA; callous affective)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Sandvik et al., 2012). 또한 사이코패시 평가(PCL-R)에 대한 대안적 도구로 인정받는 삼원 사이코패시 척도(TriPM; Patrick, 2010) 중 비열함(meanness; 예로 '무정함, 잔인함, 공감력 없는') 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최선희, 서중환, 2019).

반면 유사-친사회적 적응력 기능으로 보는 PPI-R의 대담성, 스트레스 면역은 선행연구와 비슷하게도 CAPP-IRS 전체 점수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사회적 영향력은 애착, 인지, 정서성 영역 간 부적상관을 보였다(Gatner, Douglas, & Hart, 2016; Hanniball, Gatner, Douglas, Viljoen, & Akinin, 2019). 결론적으로 CAPP-IRS는 정서와 관련된 임상적 증상 특징과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며 특히 평가 과정에서 특질 극한성(기질적 문제 등)과 기능적 손상(예, 적응상의 문제 등) 간의 구분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가장 큰 시사점은 임상적 진단과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CAPP-IRS의 국내 형사사법현장에서의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을 탐색적으로 확인한 점이다. 앞서 Skeem과 Cooke(2010a, b) 등이 제기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평가와 진단, 치료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 수준에서 열어주었다.

또한 유사 선행 연구에 견주어 볼 때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일선 임상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전확증편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임상가에게 엄격한 수준에서 교육과 훈련을 요구되며 사례에 대한 충분한 슈퍼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실험실 내 연구세팅에서 훈련된 대학원(연구조교 혹은 보조원) 평가자 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지라도(Hawes, Boccaccini, & Murrie, 2013) 다양한 배경의 형사사법현장의 임상가에게 표준화된 훈련과정을 거치게 했을 때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사이코패시 평가 과정에서 일선 현장 임상가에 대한 표준화된 훈련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본 연구가 좀 더 현장에 가까운 교정 장면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이코패시 성격(혹은 성격장애)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평가 과정을 비슷하게 따랐다. 이를테면 기록 검토 뿐 아니라 면담 전 자료 검토, 실제 면담, 이후 블라인드 평가 순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자료 검토만으로 신뢰도 검증 연구가 이뤄졌기에 실제 면담 기반의 평가도구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Olver, Stockdale, & Wong, 2012).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면담을 기반으로 한 CAPP-IRS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도구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남성 중심의 성인 범죄자 평가로써의 가능성 뿐 아니라 사이코패시 성격을 가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과 범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자기보고식 한국판 삼원 사이코패시 평가도구(TriPM; Evans & Tully, 2016; Patrick, 2010) 등과도 중간수준의 관련성이 있다는 국내 연구가 있다(최선희, 서종한, 2019).

제한점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예컨대 CAPP-IRS 실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 특질 극한성과 기능적 손상 간 구분의 신뢰성, 집단 특성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범용 가능성, 시기(특정 범주의 시기, 전 생애 등)에 따라 사이코패시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 낼 수 있는 민감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평가과정에서 임상경험과 훈련 과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미에서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이코패시 평가 도구가 통용되는데,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문항 간 난위도, 변별도, 정보지수를 나타내고 있는지 비교 문화적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PCL-R 문항이 실증적 연구차원에서 북미(캐나다)와 유럽(영국) 간 차이가 있는 연구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여 국내에 타당화 하지는 못했다(김나에, 이수정, 서종한, 2019; 서종한, 이수정, & Cooke, 2017). 따라서 CAPP-IRS의 경우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을 통해 차별문항기능(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 성태제, 2001)을 찾고 이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수용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

자이며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본 연구에 참여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동기를 갖고 있어 지나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고 표본 수의 제한점으로 일반화 수준에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저자 소개

서종한은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밴쿠버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에서 임상법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프로파일러로 활동했으며 SFU 법정신건강정책연구소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주요관심사로는 사이코패시 성격, 스토킹, 배우자 폭력, 범임상위험성평가, 프로파일링, 심리부검 등이다. 저서로는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 옆집에는 사이코패스가 있다»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나애, 이수정, 서종한 (2019). PCL-R 기반 사이코패스 비교문화연구. *교정담론*, 13(1), 1-31.

서종한, 김경일 (2019). 한국형 사이코패스 원형성과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정담론*, 13(3), 87-115.

서종한, 이수정, Cooke (2017). 문항반응이론 기반 PCL-R 비교문화 연구: 한국문화에서의 사이코패시는?. *형사정책연구*, 28(4), 47-87.

서종한, 김은하, 김경일 (201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between UK and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5), 2265-2278.

서종한, 신강현, 김경일 (2018). 한국사회에서의 사이코패스 개념, 믿음, 태도에 관한 연구: 사이코패스성격장애종합평가(CAPP)를 중심

으로. *한국범죄학*, 12(2), 5-28.

성태제 (2001). *문항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이수정, 박혜영 (2008). PPI-R 전문가 지침서: 한국판 표준화.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전혜민, 조은경 (2017). 사이코패시 측정도구 사용에 있어서 평가자의 훈련과 경험에 관한 정보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8(2), 171-193.

조은경, 이수정 (2008).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지침서(RD Hare 저, 조은경, 이수정 역), 259-295.

최선희, 서종한 (2019). 한국판 삼원사이코패스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한국범죄학*, 13(2), 5-31.

Babiak, P., Neumann, C. S., & Hare, R. D. (2010). Corporate psychopathy: Talking the walk.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8(2), 174-193. doi: <https://doi.org/10.1002/bsl.925>

Blais, J., Forth, A. E., & Hare, R. D. (2017). Examining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across a large sample of trained raters. *Psychological Assessment*, 29(6), 762. doi: <https://doi.org/10.1037/pas0000455>

Boccaccini, M. T., Turner, D. B., & Murrie, D. C. (2008). Do some evaluators report consistently higher or lower PCL-R scores than others? Findings from a statewide sample of sexually violent predator evalu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4(4), 262. doi: <https://doi.org/10.1037/a0014523>

Boddy, C. R. (2011). The corporate psychopaths theory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2(2), 255-259. doi: <https://doi.org/10.1007/s10551-011-0810-4>

Cleckley, H. (1988). *The mask of sanity: An attempt to clarify some issues about the so called psychopathic personality* (5th ed.). St. Louis: Mosby.

- Cooke, D. J., & Logan, C. (2018). Capturing psychopathic personality: Penetrating the mask of sanity through clinical interview.
- Cooke, D. J., & Michie, C. (1997).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sychological assessment*, 9(1), 3. doi: <https://doi.org/10.1037/1040-3590.9.1.3>
- Cooke, D. J., Hart, S. D., Logan, C., & Michie, C. (2012). Explicat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nceptual model,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4), 242-252. doi: <https://doi.org/10.1080/14999013.2012.746759>
-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Clark, D. A. (2004). Reconstructing psychopathy: Clarifying the significance of antisocial and socially deviant behavior in the diagno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4), 337-357. doi: <https://doi.org/10.1521/pedi.2004.18.4.337>
- Cooke, D. J., Michie, C., Hart, S. D., & Hare, R. D. (1999). Evaluating the Screening Version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 SV):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11(1), 3. doi: <https://doi.org/10.1037/1040-3590.11.1.3>
- Cooke, D. J., Hart, S. D., Logan, C., Michie, C., (2004).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ional Rating Scale (CAPP-IRS). Department of Psychology,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 Dawson, S., McCuish, E., Hart, S. D., & Corrado, R. R. (2012). Crit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sychopathy: An illustration using two cas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2), 63-79. doi: <https://doi.org/10.1080/14999013.2012.676149>
- De Page, L., Mercenier, S., & Titeca, P. (2018). Assessing psychopathy in forensic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Validating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ional Rating Scale (CAPP-IRS). *Psychiatry research*, 265, 303-308.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8.05.019>
- DeMatteo, D., Edens, J. F., Galloway, M., Cox, J., Smith, S. T., Koller, J. P., & Bersoff, B. (2014). Investigating the rol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 United States case law.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1), 96. doi: <https://doi.org/10.1037/a0035452>
- DeMatteo, D., Hart, S. D., Heilbrun, K., Boccaccini, M. T., Cunningham, M. D., Douglas, K. S., ... & Reidy, T. J. (2020). Statement of concerned experts on the use of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 capital sentencing to assess risk for institutional viol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6(2), 133. doi: <https://doi.org/10.1037/law0000223>
- Evans, L., & Tully, R. J. (2016).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TriPM): Alternative to the PCL-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7, 79-86. doi: <https://doi.org/10.1016/j.avb.2016.03.004>
- Fleiss, J. L. (1981).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s for inter-rater reliability studi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 105-112.
- Flórez, G., Casas, A., Kreis, M. K., Forti, L., Martínez, J., Fernández, J., ... & Cooke, D. J. (2015). A prototypicality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model Spanish 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9(5), 707-718. doi: https://doi.org/10.1521/pedi_2014_28_167
- Forth, A. E, Kosson, D. S., & Hare, R. D. (2003). *The Hare PCL: YV*.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Galietra, M. (2018). Adapting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use in correctional settings. In *New Frontiers in Offender Treatment* (pp. 147-169). Springer, Cham.
- Gatner, D. T., Douglas, K. S., & Hart, S. D. (2016). Examining the incremental and interactive effects of boldness with meanness and disinhibition within the triarchic model of psychopath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7*(3), 259.
- Hanniball, K. B., Gatner, D. T., Douglas, K. S., Viljoen, J. L., & Akinin, L. B. (2019). Examining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in self-identified offender population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0*(4), 340.
- Hansen, A. L., Johnsen, B. H., Thornton, D., Waage, L., & Thayer, J. F. (2007). Facets of psychopathy, heart rate variability and cognitive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5), 568-582. doi: <https://doi.org/10.1521/pedi.2007.21.5.568>
- Hare, R. D. (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1-119. doi: [https://doi.org/10.1016/0191-8869\(80\)90028-8](https://doi.org/10.1016/0191-8869(80)90028-8)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 Neumann, C. S. (2010). The role of antisociality in the psychopathy construct: comment on Skeem and Cooke (2010). doi: <https://doi.org/10.1037/a0013635>
- Hart, S. D., Cox, D. N., & Hare, R. D. (1995). *Har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 SV)*. Multi-Health Systems.
- Hawes, S. W., Boccaccini, M. T., & Murrie, D. C. (2013). Psychopathy and the combination of psychopathy and sexual deviance as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Meta-analytic findings using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sychological assessment, 25*(1), 233. doi: <https://doi.org/10.1037/a0030391>
- Hoff, H. A., Rypdal, K., Mykletun, A., & Cooke, D. J. (2012). A prototypicality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model (CAPP).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3), 414-427. doi: <https://doi.org/10.1521/pedi.2012.26.3.414>
- Ismail, G., & Looman, J. (2018). Field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2), 468-481. doi: <https://doi.org/10.1177/0306624X16652452>
- Jones, D. N., & Paulhus, D. L. (2010). Different provocations trigger aggression in narcissists and psychopath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12-18. doi: <https://doi.org/10.1177/1948550609347591>
- Kreis, M. K., Cooke, D. J., Michie, C., Hoff, H. A., & Logan, C. (2012).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content validation using prototyp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3), 402-413.
- Keszei, A. P., Novak, M., & Streiner, D. L. (2010). Introduction to health measurement sca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4), 319-323. doi: <https://doi.org/10.1016/j.jpsychores.2010.01.006>
- Koo, T. K., & Li, M. Y. (2016). A guideline of selecting and report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reliability research. *Journal of chiropractic medicine, 15*(2), 155-163. doi: <https://doi.org/10.1016/j.jcm.2016.02.012>
- Kreis, M. K., & Cooke, D. J. (2012). The manifestation of psychopathic traits in women:

- An exploration using case ex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4), 267-279. doi: <https://doi.org/10.1080/14999013.2012.746755>
- Kreis, M. K., Cooke, D. J., Michie, C., Hoff, H. A., & Logan, C. (2012).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content validation using prototyp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3), 402-413. doi: <https://doi.org/10.1521/pedi.2012.26.3.402>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159-174. doi: <https://doi.org/10.2307/2529310>
- Lilienfeld, Scott O., Michelle R. Widows, & P. A. R. Staff. (2005).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TM-revised." *Social Influence (SOI)* 61.65: 97.
- Maugh, S. (1941). A concept of psychopathy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its evolution and historical development. *Journal of Criminal Psychopathology*.
- McCormick, A., Corrado, R., Hart, S. D., & Cohen, I. M. (2008). Interrater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carcerated young offenders. In Eigh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Mental Health Services (IAFMHS) Annual Conference, Vienna, Austria.
- Olver, M. E., & Wong, S. C. (2013). Treatment programs for high risk sexual offenders: Program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attrition, treatment change and recidivis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5), 579-591. doi: <https://doi.org/10.1016/j.avb.2013.06.002>
- Olver, M. E., Stockdale, K. C., & Wong, S. C. (2012). Short and long-term prediction of recidivism using the youth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in a sample of serious young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r*, 36(4), 331. doi: <https://doi.org/10.1037/h0093927>
- Patrick, C. J. (2010). Operationalising the Triarchic Conceptualisation of Psychopathy: Preliminary Description of Brief Scales for Assessment of Boldness, Meanness and Disinhibition. Unpublished Manual.
- Pedersen, L., Kunz, C., Rasmussen, K., & Elsass, P. (2010). Psychopathy as a risk factor for violent recidivism: Investigating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 SV) and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 a forensic psychiatric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9(4), 308-315. doi: <https://doi.org/10.1080/14999013.2010.526681>
- Polaschek, D. L., & Skeem, J. L. (2018). Treatment of adults and juveniles with psychopathy.
- Sandvik, A. M., Hansen, A. L., Kristensen, M. V., Johnsen, B. H., Logan, C., & Thornton, D. (2012). Assessment of psychopathy: Inter-correlations between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ional rating scale, and self-report of psychopathy scale-III.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4), 280-288. doi: <https://doi.org/10.1080/14999013.2012.746756>
- Sellbom, M., Lilienfeld, S. O., Fowler, K. A., & McCrary, K. L. (2018). The self report assessment of psychopathy: Challenges, pitfalls, and promises.
- Shrout, P. E., & Fleiss, J. L. (1979). Intraclass correlations: uses in assessing rater reli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86(2), 420.
- Skeem, J. L., & Cooke, D. J. (2010). Is criminal behavior a central component of psychopathy? Conceptual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debate.

-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33. doi:
<https://doi.org/10.1037/a0008512>
- Skeem, J. L., & Cooke, D. J. (2010a). Is criminal behavior a central component of psychopathy? Conceptual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debate.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33.
- Skeem, J. L., & Cooke, D. J. (2010b). One measure does not a construct make: Directions toward reinigorating psychopathy research-reply to Hare and Neumann (2010).
- Skeem, J. L., Polaschek, D. L., Patrick, C. J., & Lilienfeld, S. O. (2011). Psychopathic personality: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tific evidence and public policy.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2(3), 95-162. doi:
<https://doi.org/10.1177/1529100611426706>
- Stoll, E., Heinzen, H., Köhler, D., & Huchzermeier, C. (2011).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Validity and practicability of the German version. Frankfurt am Main, Germany: Verlag für Polizeiwissenschaft.
- Taylor, R. (1990).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 basic review. *Journal of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 1(1), 35-39. doi:
<https://doi.org/10.1177/875647939000600106>
- Tew, J., & Atkinson, R. (2013). The Chromis programme: From conception to evaluation. *Psychology, crime & law*, 19(5-6), 415-431. doi:
<https://doi.org/10.1080/1068316X.2013.758967>
- Wong, S. C., & Gordon, A. (2013). The violence reduction programme: A treatment programme for violence-prone forensic clients. *Psychology, Crime & Law*, 19(5-6), 461-475. doi:
<https://doi.org/10.1080/1068316X.2013.758981>
- 1 차원고접수 : 2021. 10. 31.
수정원고접수 : 2021. 12. 08.
최종게재결정 : 2021. 12. 27.

The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 Institutional Rating Scale(CAPP - IRS) In Korea

Sea, Jonghan

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ional Rating Scale(CAPP-IRS) in Korea. Eighty nine inmates at correctional prisons across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study. We compared the CAPP-IRS' psychometric properties to thos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PPI-R). As a result, the CAPP-IRS showed good to excellent interrater reliability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The CAPP-IRS also showed overall good associations with interview-based PCL-R and self-reporting based PPI-R, which means good concurrent validity.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CAP-IRS approved clinical utility for the assessment, diagnosis, and intervention in Korea.

Key words : CAPP-IRS, psychopathy, reliability, validity, interview-based, offenders